

농촌일손돕기 추진단 운영

남원시, 6월까지 시청·읍면동·농협에 설치... 관내 기관단체 참여

남원시에서는 농번기인 5~6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시청, 읍면동, 농협에 설치하고 관내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4년부터 도농 농업인력지원센터(http://www.agriwork.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수급 정보구축 및 농업인과 도시근로자·관내 유휴인력을 연결해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 농업정보센터를 구축(http://www.namwonat.go.kr/index.namwon)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연결시켜 해결해 나가고 있다.

농촌일손부족은 계절과 작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대부분이 불철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과일썩기, 봉지썩우기)농가에 일손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봄철 일손돕기에 남원시청 실과소, 읍면동 직원 및 유관기관에서 35농가에 712명이 과수농가에 일손을



남원시에서는 농번기인 5~6월까지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시청, 읍면동, 농협에 설치하고 관내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하여 작기영농에 힘을 보태어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

남원시는 봄철 농촌일손돕기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숙련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계자 등 전문인력 입회하여 작업을 지도하

는 한편 일손지원 기관·단체는 대규모 인력동원보다는 10~20명 단위로 편성해 내실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정보센터 구인·구직란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복분자 아락' 몽드셀렉션 금상 수상

(주류품평회)

배상면주가 고창LB 생산

배상면주가 고창LB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술을 만드는 회사임을 입증받았다.

배상면주가 고창LB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주류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복분자 아락' 제품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3일 전했다.

'복분자 아락'은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만을 발효하여 강렬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는 증류주이다.

'복분자 아락'은 지난해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이미 알린 바 있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주류 품평회로 영국의 IWSC(International Wine Spirit Competition),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WSC(San Francisco World Spirit

Competition)와 함께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다.

매년 80개국 이상 3,000개가 넘는 주류제품들이 경쟁을 펼치며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개월 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을 선정한다.

안재식 대표는 "몽드셀렉션의 금상 수상은 '복분자 아락'의 최고 품질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도원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라"

임실군의회, 옥정호 개발에 대한 정읍시 우려에 대해 입장 표명

임실군의회는 3일 오전 10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옥정호 개발을 둘러싼 정읍시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은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읍)의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임실군은 옥정호의 수질 개선과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실하수처리장 건립, 옥정호 생태복원사업, 옥정호 환경지킴이 사업,

도량살리기 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해왔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질 오염총량제 목표수질도 꾸준히 달성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금지조례 등 수질 보전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옥정호 수질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서, "우리 임실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수질오염 우려 제기와 수상 레포츠 사업 등을

이유로 정읍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읍시 철보 취수구가 위치한 도원천의 평균 수질이 우리 군 강진 정수장의 취수구 평균수질보다 1.7배 좋지 않은 것은 동진강 도원천 주변에 밀집된 축산농가 등의 오염원이 주원인이며, 정읍시가 오염원 및 수변관리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안전한 생활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읍시민에게 공급하는 생활용수의 깨끗한 원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철보 취수구를 기점으로 도원천 상류 13.6km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법규에 맞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황토고구마 홍보 '문화시장'

파머스 마켓·셰프의 식탁·봄날의 재즈 등 어우러져

고창군에서 독특한 컨셉의 문화시장이 열렸다.

군은 청보리밭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공음면 화원농장 일원에서 고창군과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이 축제장 방문객들을 위한 '마켓, 레이저헤븐(Market, Lazy Heaven)'이 개최됐다고 3일 전했다.

'마켓, 레이저헤븐'은 '나른한 일요일의 문화시장'을 컨셉으로 농산물을 사고파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 문화, 예술, 만남, 발견, 그리고 로컬 푸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문화행사로 기획됐다.

이날 고창군의 청정 고구마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고구마요리 시연과 제즈공

연, 사진·영상 전시 등 예술 공연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마켓이 열렸다.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의 고구마 브랜드인 '자연터밭 고구마'를 비롯한 고창 특산품을 소개하는 '파머스 마켓'이 열렸으며 유정인 셰프가 선사하는 '셰프의 식탁', 김가은 트리오와 보컬리스트 김혜미의 '봄날의 재즈' 등 문화 콘텐츠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고창황토고구마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고구마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고 향토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옥정호 수질보전 '박차'

임실군이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옥정호 수질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옥정호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수원 지킴이 25명을 선발 채용하여 강수량이 증가하고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상수원 구역 내 낚시행위를 비롯한 쓰레기투기 행위, 차량 세차 행위, 오물 투기 행위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상시 감시체계 유지와 계도,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상수원 지킴이 활동은 옥정호 상류에서 비가 오면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와 수변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쓰레기 수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에너지 클리닉서비스 운영

남원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는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한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는 5월부터 4개월간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10명이 각 가정을 찾아가 에너지 사용량과 생활패턴을 진단, 맞춤형 절감 방법을 처방하고 지속적인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는 윈스플 방문 서비스이다.

2인 1조로 10명의 에너지 컨설턴트가 신청가구를 방문, ▲대기전력 차단 등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단열 창호, 고효율 조명기기 개선 ▲난방, 취사시 에너지 절감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 에너지효율 등급, 텀보 조종 등 녹색생활 실천 정보 등도 안내하며, 에너지 절약에 도움 되는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청 환경과(☎620-6235)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녹색에너지파트너 선정된 곳을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가정 400세대, 상가 40개소, 학교 4개교로 제한되며 마감은 선착순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N치즈, 고속도로 홍보·판매행사

5~8일 완주~순천 오수휴게소(하행)에서 체험·시식·판매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완주~순천고속도로 오수휴게소(하행)에서 임실N치즈에 대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주인과 어린이날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실치즈 공

동브랜드인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종 피자 브랜드인 임실N치즈피자 만들기 체험행사를 비롯해 치즈·요구르트 시식 행사와 판매행사도 열린다.

군 관계자는 "오수휴게소가 임실치즈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18곳 선정

남원시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18개 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남원시는 올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주민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시행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나서

임실군이 교통사고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교량과 진입로 등 각종 소규모 시설에 난간,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을 5월 완공을 목표로 설치한다.

또한, 군은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우선적으로 위험요소가 큰 30개의 시설물을 선정하고 총 1,231m의 난간과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엔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